

대선 D-100일...5대 변수

# ① 범여후보 단일화 1대1구도 형성될까

이번 대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막판 변수가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범여권이 이날 초야야 대선후보 경선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2002년 16대 대선에 비해 무려 7개월 가량 대선 레이스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17대 대선의 변수를 짚어본다.

범여권이 후보단일화로 반(反)한나라당 전선을 완성, '일 대 일' 구도를 창출하느냐가 대선 판도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범여권이 2002년 대선 때처럼 막판 극적 단일화를 이뤄낸다면 한나라당 우세측의 대선 구도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각각 10월15일과 16일, 자체 후보를 선출한 뒤 11월 중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장외의 주자인 문국현 후보가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후보 단일화는 통합 작업 만큼이나 지난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별다른 문제없이 후보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제17대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근한 직원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신형 투표함과 기표소, 개표용 신형 계수기를 정리하고 있다.

## ② 이명박후보 '검증 태풍' 비켜갈까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 방이 면 간다'는 이명박 후보의 검증론도 대표적 변수다. 이 후보가 비리 등으로 인해 결국 대선 가도에서 낙마한다는 시나리오이자, 실제로 범여권은 검증의 칼날을 갈고 있다. 이 후보는 과거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 투자운용사 BBK의 주가조작사건 연루, '도곡동 땅' 친인척 차명재산 등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이슈화되지 않았던 '에리카 김 의혹'을 범

여권에서 비장의 검증카드로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도곡동 땅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 후보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검증 폭탄이 여럿 있다는 것이 범여권의 주장이다.

## ③ 정상회담 범여 호재될까 악재될까

10월 초로 예정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대선전국에 짙은 불확실성을 드리우는 초대형 변수로 꼽힌다. 대선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전반의 안보질서와 직결된 거대 담론이 정국의 중심의 제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남북문제는 대북 포용 기조를 유지해온 범여권이 비교우위를 보여온 정책 이슈라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에 따라 범여권이 호재

를 맞을 수 있다. 즉, 한나라당의 독주체제에 일정한 변곡점이 생기고 그동안 수세에 몰린 범여권은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성과가 기대치에 못미치거나 정쟁이 격화될 경우 범여권으로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金心·盧心 누구에게로 갈까

대통합 민주신당의 '정신적 공동대주주'라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심중도 대선 가도의 변수 가운데 하나다. 일단 노 대통령은 신당 출범 이후 손학규 후보의 한나라당 탈당을 '보

김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정 주자를 미는 '김심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교동계 일부 인사들이 손학규, 정동영 캠프에 포진해 있다는 점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정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항할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 ⑤ 지역주의 재연·호남민심 향배는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주의는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다. 일단 과거보다는 지역주의 색채가 엷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영남 표심과 호남 표심의 향배가 관건이다. 영남 표심이 포항에서 성장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압도적 지지를 보낼 경우 지역주의 극복은 제자리 걸음을 할 전망이다. 범여권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얻은 만큼의 지

지를 영남에서 얻어야 지역주의 극복에 희망을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호남 민심의 향배도 관심이다. 지난 대선에서 영남 출신의 노무현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주의 극복의 진정성은 상당 부분 상쇄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윤곽 드러낸 문화수도 종합계획안 주요 쟁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쟁점들이 조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는 7일 광주 홍보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문광부의 최종안을 검토했다. 이날 조성위에 보고된 문광부의 종합계획안은 지난 달 2차례에 걸친 서울·광주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과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으며, 조성위도 문광부 안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였다.

## 랜드마크, 별도 조형물 건립 20년 전당 주차면적 축소 관심

결국 오는 17일 열린 조성위 4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광부 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광부는 다음 달 8일 문화중심도시 대국민선포식에 이은 연내 공사 발주라는 목표 아래 종합계획안 마련을 서둘렀으며, 최고심의기관인 조성위에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문광부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성위는 문광부가 랜드마크 기능·현대미술관 분관 설치·대형 전문공연장 신설 등의 보완에 대해 향후 용역 등을 통해 활용하고,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전문미술관 별도 설치를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4조 9천억원 수준인 사업비를 7조 1천억원 규모로 증액해 반영하는 시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20년이라는 점을 감안, 예산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자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문화전당 외곽 주차장 설치 문제도 문광부 안 대로 결정됐다. 문화전당 내에 6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두고, 인근 광주죽여고 부지에 대형 전문공연장 신설 등의 보완에 대해 향후 용역 등을 통해

### 5대 콘텐츠 육성사업 국·지방비 함께 투입 조성위, 문광부案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힌 입장도 관련, 용역시기와 구체적인 보완 방법을 종합계획안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사업이 명문화되지 않을 경우 자치 문화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아시아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 문제는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인접지에 별도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 또한 시와 지역 문화계가 요구한 초대형 오페라나 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대형 전문공연장 설치건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공연장의 설계를 변경하는 대신 기존의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오페라 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미술관 분관 설치 요구도 전당 내 복합전시관의 상설전시 공간을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United Hospital. Headline: '미소로, 정성으로, 내 가족 같이...' (With a smile, with care, like my family...). Sub-headline: '또 하나의 한국병원, 문암한국병원과 광주한국병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가겠습니다.' (Another Korean hospital, Munam Korean Hospital and Gwangju Korean Hospital will protect your health). The ad features images of hospital buildings and lists services like '신체검사' (Physical Exam), '신생아진료' (Neonatal Care), '진료문의' (Consultation), and '진료예약' (Appointment).